

신반포중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과목명	국어	과목코드	01
	2016학년도 7월 7일 1교시	출제자	김은경, 최은진, 김성희		
	반 번호: _____ 이름: _____				

※ 다음 문제를 읽고 물음에 맞는 답을 찾아 OMR카드에 작성하세요.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담양이나 창평 어디쯤 방을 얻어
다람쥐처럼 드나들고 싶어서
㉠고즈넉한 마을만 보면 들어가 기웃거렸다.
지실마을 어느 집을 지나다
오래된 한옥 한 채와 새로 지은 별채 사이로
㉡수더분한 꽃들이 피어 있는 마당을 보았다.
나도 모르게 열린 대문 안으로 들어섰는데
㉢아저씨는 솥돌에 낫을 갈고 있었고
아주머니는 발에서 막 돌아온 듯 머릿수건이 축축했다.
— 저어, 방을 한 칸 얻었으면 하는데요.
일주일에 두어 번 와 있을 곳이 필요해서요.
내가 조심스럽게 한옥 쪽을 가리키자
아주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 ㉣글쎄, 아그들도 다 서울로 나가볼고
우리는 별채서 지낸게로 안채가 비기는 해라우.
그라제마는 ㉤우리 집안의 내력이 짓든 데라서
맴으로는 지금도 쓰고 있단 말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정갈한 마루와
마루 위에 앉아 계신 저녁 햇살이 눈에 들어왔다.
세놓으라는 말도 못하고 돌아섰지만
그 부부는 알고 있을까.
㉥빈방을 마음으로는 늘 쓰고 있다는 말 속에
내가 이미 세 들어 살기 시작했다는 걸.

(나) 깊고 깊은 두메산골
내 옛 고향은
호박꽃, 박꽃 지붕에 피고
호롱불 봉창은 가난했었다.

누런 들판엔 메뚜기들이
후두두 후두두두두 떼 지어 날아
수수밭, 콩밭에도 푸짐했었다.

모깃불 명석 마당 등잔불 타고
저녁 밥상 둘러앉은 식구들 위에
하늘에서 은은히 별빛도 내려와

1.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점)

① 연의 구분이 없이 쓰여진 산문시이다.
② 구체적 지명을 제시하여 작품의 사실성을 높였다.
③ 주인 부부는 방을 잠시 머무는 휴식의 공간으로 생각한다.
④ 아주머니의 사투리 사용은 독자에게 친근감과 유대감을 느끼게 한다.
⑤ ‘오래된 한옥’, ‘새로 지은 별채’는 시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잘 나타낸다.

2. (가)에서 <보기>와 관련된 사회·문화적 상황이 나타난 곳을 두 개 고르면? (4점)

— < 보기 > —

- 농촌 사회가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다. 자녀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고 노인 부부만 남은 가구가 늘면서 두 집 중 한 집은 2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단순히 노인 인구가 많다는 문제를 넘어 농촌 사회의 유지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 끈끈한 가족애는 서구문화와는 차별화되는 한국인의 고유문화이자 정서이다. 하지만 현대사회로 올수록 가족 간의 끈끈한 정을 느끼는 것이 어렵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선이라 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3. (가)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원하는 방을 구하게 되었다.
② 주인 부부와 함께 살게 되었다.
③ 주인 부부를 설득해 방을 얻었다.
④ 주인 부부를 본받아 성실하게 살게 되었다.
⑤ 주인 부부와 그 집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되었다.

4.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점)

① 농촌의 풍경을 나타내는 소재를 많이 사용했다.
② 따뜻하고 여유로웠던 과거의 고향을 회상하고 있다.
③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비장(悲壯)하게 표현했다.
④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가족의 풍경을 서정적으로 그리고 있다.
⑤ ‘~었다’라는 과거형 표현을 사용하며 옛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

☞ 뒷면에 계속

5. (나)의 각 연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4점)

- ① 1연 - 고향에서의 가난을 서글퍼하던 화자의 안타까운 모습이다.
- ② 1연 - 산업화가 진행된 오늘날의 도시에서는 보기 어려운 풍경이다.
- ③ 2연 - 농약을 많이 치는 오늘날의 농촌사회에서는 보기 어려운 풍경이다.
- ④ 3연 - 핵가족화가 진행된 오늘날에는 보기 어려운 풍경이다.
- ⑤ 3연 - 식구들과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 것이 일상적 이었던 과거의 모습이다.

[6~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무튼 소녀는 우리 마을 우리 또래의 아이들에게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발견되었다. 선물치고는 무척이나 지저분하고 망측스러웠다. 미처 세수도 하지 못한 **[때썩재기]**, 우리 눈에 비친 그 애의 모습은 거의 거지나 다름없을 정도였다. 우리 역시 그다지 깨끗한 편이 못 되는데도 그랬다. 먼저, 쫓기는 사람들의 무리가 드문드문 마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이어 포성이 울렸다. 돌산을 뚫는다고 멀리서 터뜨리는 **[남포]**의 소리처럼 은은한 포성이 울릴 때마다 집 안의 기둥이나 서까래가 울고 흠뻑이 떨어졌다. 포성과 포성의 사이사이를 뚫고 피란민의 행렬(行列)이 줄지어 밀어닥쳤고, 마을에서 잠시 머물며 노독(路毒)을 푸는 동안에 그들은 옷가지나 금불이 따위의 물건을 식량하고 바꾸었다. 바꿀 만한 물건이 없는 사람들은 동냥을 하거나 훔치기도 했다.

(나) “아아니, 너, 고거 금가락지 아니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금반지는 어느새 어머니의 손에 건어가 있었다. 술개가 병아리를 채듯이 서울 아이의 손에서 금반지를 낚아채어 어머니는 한참을 **[집떠보고]** 내리떠보는가 하면, 햇바다으로 침을 묻혀 무명 저고리 앞섶에 싹삭 문질러 보다가 나중에는 이빨로 깨물어 보기까지 했다. 마침내 어머니의 얼굴에 만족스런 미소가 떠올랐다.

“아가, 너 요런 것 어디서 났냐?”

웃고름의 실밥을 뜯어 그 속에 얼른 금반지를 넣고 **[웅충끓은]** 저 밀바다까지 확실히 당도록 두어 번 흔들고 나서 어머니는 서울 아이한테 물었다. 놀랍게도 어머니의 목소리는 서울 아이의 그것보다 훨씬 더 간드러지게 들렸다.

(다) 어느 날, 명선이는 부모가 죽던 순간을 나에게 이야기했다. 피란길에서 공습을 만나 가까운 곳에 폭탄이 떨어졌는데, 한참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 보니 어머니의 커다란 몸뚱이가 숨도 못 쉴 정도로 전신을 무겁게 덮어 누르고 있더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마구 소릴 지르면서 엄마를 떠밀었다. 난 그때 엄마가 죽은 줄도 몰랐어.”

그리고 명선이는 숙부네가 저를 버리고 도망치던 때의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실은 말이지, 숙부가 날 몰래 내버리고 도망친 게 아니라 내가 숙부한테서 도망친 거야. 숙부는 기회만 있으면 날 죽일라구 그랬거든.”

(라) 오래지 않아 명선이를 머슴으로 부리려던 숙셈을 어머니는 깨끗이 포기했다. 괜히 여기저기에서 말썽이나 부리고 편둥편둥 놀면서 삼시 세끼 밥이나 축내는 그 뒤 통거리를 어떻게 하면 내쫓을 수 있을까 하고 궁리하는 게 어머니의 일과였다. 아버지 앞에서 어머니는 그동안 먹여 주고 재워 준 값과 금반지 한 개의 값어치를 면밀히 따지기 시작했다.

“천지신명(天地神明)을 두고 허는 말이지만 가한티 죄로 가지 않을 만침 험다고 헐구만요.”

“허기사 난리 때 금가락지 한 **[돈쪼]**은 똥 가락지여. 금 먹고 금 똥 썩다면 혹 몰라도……; 쌀 툴이 금쪽보담 귀한 세상인다…….”

“그러니 저 작것을 어찌지요?”

“밥을 굶겨 봐. 지가 배고프고 허기지면 더 있으래도 지 발로 나가겠지.”

“가가 나가겠소? 물뺨드기마냥 뺨들거림시로 무신 수를 써서라도 절대 안 굶을 아요.”

(마) “요, 요것이, 개패같이 달린 요것이 뭇이디야?”

명선이의 하얀 가슴께를 들여다보며 어머니가 소리를 질렀다. 곁에 있던 아버지가 얼른 그것을 가리려는 명선이의 손을 뿌리치고 뚝 잡아챘다. 줄에 매달린 이름표 같은 것이었다. 아직도 한 줌의 빛살이 웅색하게 남아 있는 서쪽 하늘에 대고 거기에 적힌 글씨를 읽은 다음, 아버지는 마치 무슨 보물섬의 지도나 되듯 소중스레 바지춤에 찔러 넣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돌아서면서 눈을 딱 부릅떠 엄포를 놓는 것이었다.

“나하고 원수 적질 생각 아니면 앞으로 야한티 터럭손 하나 건덜지 마시오!”

언젠가 가뭄 흉년(凶年) 때 이웃 논이 임자하고 물꼬 싸움을 벌이면서 시퍼렇게 삼밭을 들이대던 그때의 그 표정보다 훨씬 더 포악해 보였다.

6. 윗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점)

- ① 나의 어머니: 계산적이며, 이해타산적인 인물로 비인간적 면모를 보임
- ② 명선이: 금반지를 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며 어른들에게 순종하는 평면적 인물
- ③ 나: 어른들의 물질 중심적 태도를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방관자적 태도로 일관함
- ④ 명선이의 숙부: 명선이의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더 이상 명선이를 돌보지 않고 피란을 가버린 비정한 인물
- ⑤ 나의 아버지: 사나운 성격으로 마을 사람들의 탐욕으로부터 명선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앞뒤를 가리지 않음

☞ 다음 장에 계속

신반포중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과목명	국어	과목코드	01
	2016학년도 7월 7일 1교시	출제자	김은경, 최은진, 김성희		
		반 번호:	이름:		

7. (가)~(라)의 □안의 단어 풀이로 옳은 것은? (3점)

- ① **때뵈재기** 아침에 세수하지 못한 사람을 비꼬는 말
- ② **남포** 안전편을 뽑아 던지면 폭발하는 수류탄의 일종
- ③ **칩떠보고** 눈을 가늘게 뜨고 오래도록 신중히 살피다
- ④ **웅숭깊은** 속이 깊어 끝을 헤아리기 힘들다
- ⑤ **돈쪼** 귀금속이나 한약재 등의 무게를 잴 때 쓰는 무게의 단위

8. 윗글을 <보기> ㉠~㉣의 관점에서 감상한 것으로 옳은 것은? (4점)

- < 보기 > —
- ㉠ 내재적 관점: 문학에서 나온 내용, 형식, 표현을 중심으로 감상하는 관점
 - ㉡ 표현론적 관점: 문학 작품을 작가의 체험과 사상 등이 표현된 것으로 보는 관점
 - ㉢ 종합주의적 관점: 내재적, 외재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관점
 - ㉣ 반영론적 관점: 작품 속 현실과 실제 세계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어 감상하는 관점
 - ㉤ 효용론적 관점: 문학 작품이 독자에게 예술적인 감동과 깨달음을 주는 것으로 보는 관점

- ① ㉠: (나)의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 전쟁이 인간의 정신적 삶도 황폐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 ② ㉡: (라)의 대화에 쓰인 사투리는 향토적 토속적 분위기를 잘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
- ③ ㉢: (다)를 통해 전쟁의 비극성과 비인간성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어.
- ④ ㉣: (가)를 통해 한국 전쟁 당시 피란민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는지 알 수 있었어.
- ⑤ ㉤: (마)의 서술방식은 등장인물의 교활하고 탐욕적인 성격을 독자에게 직접 제시하기에 적합해.

[9~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 고장 칠월은

청포도가 익어 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열리고
먼 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靑袍)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은 함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이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9. 위 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의성어, 의태어의 사용으로 운율이 느껴진다.
- ② 희망을 나타내는 푸른색의 소재가 네 가지 제시된다.
- ③ 유사한 문장구조의 반복을 통해 저항의지를 강조한다.
- ④ 흰색과 푸른색의 색채대비로 엄숙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 ⑤ 명령적인 어조를 통해 화자의 강압적 심리 상태가 느껴진다.

10. <보기>의 이육사 연표를 참고할 때 위 시에 쓰인 **소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점)

— < 보기 > —

1927 '장진홍 의사 의거'에 연루된 혐의로 대구 형무소에 투옥, 이때의 죄수 번호인 264번을 따서 호를 '육사'라고 지음.
1929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남.
1933 난징의 조선 군사 간부 학교 졸업 후 귀국, 이때부터 일제의 감시 하에 체포와 구금 생활을 반복
1939 "문장" 8월 호에 시 '청포도' 발표
1943 헌병에 체포되어 베이징으로 압송
1944 베이징 감옥에서 사망

- ① **청포도** - 다가 올 조국 광복
- ② **하늘** - 과거의 평화롭던 삶
- ③ **푸른 바다** - 고달픈 현실
- ④ **손님** - 풍성한 삶
- ⑤ **하이얀 모시 수건** - 손님에 대한 화자의 정성

11.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두 개 고르면? (4점)

- ① 상징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주제를 드러낸다.
- ② 평화롭고 풍요로운 미래 세계에 대한 소망을 나타낸다.
- ③ 손님을 맞이하는 기쁨을 격정적인 어조로 표현하고 있다.
- ④ '란', '럼'의 종결어미를 사용해 화자의 아쉬운 마음을 나타낸다.
- ⑤ 아직 오지 않은 손님에 대한 기다림에 지쳐있음을 나타낸다.

☞ 뒷면에 계속

12. <보기>는 이 시에 대한 비평문의 일부이다. ㉠~㉦중 이 작품을 외재적 관점으로 감상한 것은? (4점)

< 보기 >

- ㉠ 이 작품은 평화로운 미래 세계에서 누군가를 맞이하길 꿈꾸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아름다운 시어로 표현한 작품이다.
- ㉡ 먼저 푸른색과 흰색의 심상을 대비하여 '손님'을 기다리는 화자의 순수한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 ㉢ '청포도', '푸른 바다', '청포'의 푸른색은 '흰 돛단배', '은쟁반', '하이얀 모시 수건'의 흰색과 대비되어 한결 더 청아하고 깨끗한 느낌을 준다.
- ㉣ 특히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준비하는 '청포도', '은쟁반' 등은 광복의 날을 기다리는 순수한 마음과 희망을 비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 또한 '칠월', '청포도', '푸른', '식탁' 등의 시어에 쓰인 거센소리 ㅈ, ㅊ, ㅋ 등은 두 손을 적시며 청포도를 맛보는 순간과 같은 시원함을 느끼게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만덕은 성이 김(金)으로 제주도 양민(良民)의 딸이다.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의지할 곳이 없어 기생집에서 더부살이를 했다. 만덕이 성장하면서, 관청에서 만덕의 이름을 기생 장부에 올렸다. 만덕은 비록 머리를 숙여 기생으로 일하였으나 스스로 기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만덕이 스무 살 무렵, 관청에 자신의 사정을 눈물로 호소하였다. 관청에서 만덕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기생 장부에서 빼내어, 양민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다. 이후, 만덕은 양민의 신분으로 살았으나 나이가 들도록 남편을 맞이하지는 않았다.

만덕은 돈 버는 재주가 뛰어났다. 그녀는 물가의 변동을 잘 알아서 알맞은 때에 물건을 샀다가 되팔았다. 수십 년 뒤에 만덕은 부자로 이름이 드날릴 정도로 돈을 모았다. (중략)

백성의 굶주림을 구제(救濟)하는 일이 끝나자, 제주 목사(牧使)가 만덕의 일을 조정에 보고하였다. 임금이 매우 기특하게 여겨 명을 내렸다.

“만일 만덕에게 소원이 있다면 어렵거나 쉽거나 따지지 말고 뭐든지 들어주도록 하라.”

제주 목사가 만덕을 불러 왕명(王命)을 알려 주며 물었다.

“네 소원이 무엇이나?”

“별다른 소원은 없습니다만, 서울에 한번 올라가 임금님 계신 곳을 멀리서나마 바라보고, 이어 금강산에 들어가 일만이천 봉우리를 구경할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당시 나라의 법으로 탐라의 여성들은 바다를 건너 물에 오르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제주 목사가 다시 만덕의 소원을 아뢰었다. 임금이 만덕의 소원을 들어주라고 명했다. 관청에서 서울로 올 때까지 말을 제공하고 객관(客館)마다 음식을 대접하도록 하였다.

만덕은 돛단배를 타고 구름 낀 아득한 바다를 건너서 병진년(1796년) 가을에 서울에 올라갔다. 한두 번 정승 체제공을 만났는데, 채 정승은 만덕을 만난 일을 글로 써서 왕에게 아뢰었다. (중략)

임금이 선혜청(宣惠廳)에 명하여 만덕에게 매달 식량을 대주게 하였다. 그리고 며칠 뒤 만덕을 내의원 의녀에 임명하여 여러 의녀의 우두머리로 삼아 대궐에 머물게 하였다. 만덕은 관례에 따라 궁궐에 들어가 왕과 왕비에게 문안을 올렸다. 그때마다 궁녀가 시중을 들었다.

임금이 후한 상을 내리며 말하였다.

“네가 여자의 몸으로 의롭게도 수많은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였으니, 참으로 기특하구나.”

만덕은 반년을 지낸 뒤 정사년(1797년) 늦봄에 금강산으로 들어가서 만폭동, 중향성 등의 기이한 경치를 차례로 구경했다. 만덕은 금부처를 마주하여 땅에 이마를 대고 절을 하며 정성을 다해 공양하였다. 탐라에 불법(佛法)이 전해지지 않았으므로, 만덕은 원여덟의 나이에 절과 불상을 처음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러고는 안문령을 넘고 유점사를 거쳐 고성으로 내려갔다. 삼일포에서 뱃놀이도 하고 통천의 충석정에도 올랐다. 만덕은 천하의 아름다운 경치를 다 본 뒤에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13. 윗글을 읽은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3점)

- ① 다른 사람의 삶에서 감동을 얻을 수 있다.
- ②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읽음으로써 글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 ③ 다른 사람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 ④ 글에 나타난 인물의 행동을 이해하고 상호작용함으로써 글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 ⑤ 글에 나타난 인물의 삶이나 인물이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 등을 통해 글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14. 윗글에 드러난 사회 문화적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4점)

- ① 신분제도가 있었다.
- ② 임금의 영향력이 매우 큰 시대임을 알 수 있다.
- ③ 제주도에는 불법(佛法)이 전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④ 여성도 재능이 있으면 남성과 동등하게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
- ⑤ 제주도 여성들은 바다를 건너 물에 오르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 다음 장에 계속

신반포중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과목명	국어	과목코드	01
	2016학년도 7월 7일 1교시	출제자	김은경, 최은진, 김성희		
		반 번호:	이름:		
1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안경우 회사 사람들이 올 텐데, 그럼 자릴 비우냐? 허영분 (세탁소 사람들을 가리키며) 이젠 저 사람들도 알잖아요? 장민숙 · 염소팔(억울해하며) 우리가 뭘 알아요? 몰라요! 안유식 (세탁소 사람들을 훑어보며) 알았어, 일단 가자고. (강태국에게 명함을 주며) 나중에라도 생각나는 게 있으면 전화 주시고, 저희가 다시 오겠습니다. (강태국에게 슬쩍) 명함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에 하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뭐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지요? 강태국(기가 막혀 웃으며) 어쨌거나 어머님 잘 보내드리시지요.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안씨 가족, 아쉬운 마음으로 퇴장한다.			
-----		안유식(나가려다 돌아서서 비장하게) 아무래도 안 되겠어. 저 말이지, 누구든지 먼저 찾는 사람한테 50프로를 주겠소! 사람들(깜짝 놀라) ㉠50프로! 허영분 여보! 안경우 형! 안미숙 ㉡그냥 세탁소를 통째로 사! 안유식 가자고. (나간다.)			
(가) 나오는 사람들 강태국 오아시스 세탁소의 주인 장민숙 강태국의 아내 강대영 강태국의 딸 서옥화 할머니의 간병인 염소팔 오아시스 세탁소의 직원 안유식 · 허영분 · 안경우 · 안미숙 할머니의 가족		안씨 가족, 종종걸음으로 따라 나간다.			
앞부분의 줄거리 ㉠ ‘오아시스 세탁소’의 주인 강태국은 힘들고 고되지만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한편 그의 부인 장민숙은 쪼들리는 살림과 딸의 교육비 걱정때때로 남편 강태국에게 돈타령을 한다. 어느 날 인근에 사는 할머니의 간병인인 서옥화가 병든 ㉡할머니의 옷을 세탁소에 맡기고, 할머니의 자식들인 안씨 가족이 세탁소로 다짜고짜 쳐들어온다. 그들은 세탁소에 보관된 할머니의 옷에 재산과 관련된 단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세탁소 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는다. 그러던 중에 장남 안유식이 할머니의 임종이 머지않았음을 알리는 전화를 받는다.		서옥화 50프로라! 장민숙(서옥화에게) 아줌마는 왜 안 가? 서옥화 여기 일 잘하는 아줌마 하나 안 필요해? 50프로가 당길 텐데? 장민숙 이 아줌마가 사람을 뭇로 알고. 공짜라도 아줌마는 싫어! 서옥화 공짜로 누가 하기는 하고? 아니 당분간 좀 바쁠 것 같은데…….			
(나) 안유식(받는다.) 여보세요. 아, 김 박사님, 예? 임종이요? 아니 찾지도 못했는데……. 아, 예, 그런 게 있어요. 아, 가야지요. (소리 지른다.) 지금 간다니까! (끊는다.) 안미숙 ㉢엄마 간대? 허영분 어머님도, 조금만 더 인심 쓰시지 않고, 세탁이 뭐야, 달랑 세탁! 서옥화 어서 가 보세요. 혹시 남은 반 토막 말이라도 들을지 알아요? 안경우 맞아요, 형. 사람들도 곧 올 텐데……. 안유식 아, 이거 참. 허영분 여보, 그냥 가? 안미숙 돈은 어떻게 하고?		염소팔 4년 7개월 똥을 치웠으면 정도 들었을 텐데, 가서 임종하시는 것도 좀 봐 드리면 덕이 되고 좋겠구먼. 서옥화 그렇겠지? 그게 도리겠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세탁소를 둘러보며) 오아시스가 아니라 보물세탁소네요. (강태국에게 애교를 부리며 코멘소리로) 강 사장님, 50프로! (영당이로 치고 간다.) 강태국(난감해하며) 어허, 참. 장민숙 아니, 저 아줌마가! 서옥화(웃으며 나간다.) 해헤헤헤헤.			
		(다) 그들은 강태국의 뒤에, 밑에, 앞에 숨어서 마치 임무를 수행하는 첩보원들처럼 검은 복색으로 우스꽝스럽게			
		☞ 뒷면에 계속			

꾸며 입고 세탁소에 잠입하여 서로 모르려니 하고 옷들을 뒤지기 시작한다. 서로의 소리에 놀라면 야옹거리고 그림자에 놀라면 짹거리면서 숨으며 서로 스쳐 지나가면서도 돈에 눈이 멀어 알아보지 못한다. 작은 전등을 입에 물고, 머리에 달고, 손에 들고 옷과 옷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누비는 불빛들. 전등 불빛에 드러나는 옷들이 마치 귀신 형상처럼 보인다. 불빛에 춤을 추는 옷들, 이리저리 집어 던져져 날아다니는 옷들. 염소팔이 던진 옷에 백열등이 크게 흔들린다. 놀란 사람들이 제풀에 얼른 옷 사이로 숨는다. 강태국이 놀라 주위를 둘러본다.

(라)

강태국 가라, 가. (솔로 옷을 던다.) 우리 마누라 알뜰해서 너 먹을 것 없다. (고개를 가웃거리며 옷을 입에 대고 맛을 본다.) 어디 보자. 이게 뭐냐? 뚱은맛이 나는 것도 같고, 어디 보자. (상자 속에서 아버지가 쓰시던 잡기장을 꺼내 읽어 본다.) **③이 뚱은 옷에 묻은 물건의 맛에 따라 그와 반대되는 맛 가진 물건으로 빼는 것이니**, (아버지 생각에) 아버지! (코를 훔치고 다시 읽는다.) 가령 사탕이 묻었으면 매운 무나 생강으로 빨고, 그 반대로 매운 고춧가루 같은 것이 묻은 때는 단 설탕으로 빨아라. 뚱은 것은 식초로 빨고 기름 지방질은 휘발유로 먼저 기름을 빼고 그다음에 전과 같이 빨 것이다. (상자에 고개를 묻고 어깨를 들썩이며 운다.) 아버지, 미안해요. (다시 상자를 뒤지며) 어딴지? 아버지, 왜 없지? ‘아버지가 생각하면 어떻게 해라.’ 하고 써 놓은 건 없어요? (아이처럼 투정을 부리며) 에이, 아버지 밉다. ‘나중에 아버지가 보고 싶을 것이다. 그땐 이렇게 해라.’ 써 놓으면 좋잖아요. (고개를 꼭 숙인다.) 참, 힘들어 죽겠다. 아버지, 저 힘들어 죽겠어요. (헛웃음을 짓는다.) 풋, 인간 강태국이 세탁소 좀 하면서 살겠다는 게 그게 그렇게도 이 세상에 맞지 않는 짓인가? 이 **⑥ ‘때’ 많은 세상 한 귀퉁이 ‘때’ 좀 빼면서**, 그거 하나 지키면서 보람 있게 살아 보겠다는데 왜 흔들지? 돈이 뭐야? 돈이 세상 전부야? 그런 거야? 이 세상이 **⑦ ‘돈’ 세상이야?** 돌았다 이거지? 돌아 버린 세상에 같이 돌아야 하는데 아버지 때문에 돌지도 못하잖아요. 아버지 책임져요! (셔츠 소매에 눈물을 닦고) **④아버지, 나 괜찮아요**, (코를 풀고) 나요, 세탁소 합니다. 아무도 안 알아줘도 좋아요. 아버지만 알면 돼. 아버지 다 알잖아, 그럼 됐지. (세상에 대고 말하듯) **⑤네놈들이 다 몰라줘도 나 세탁소 한다**. 그제 내 일이거든. (다시 일어나 일을 하며 흥얼거린다.) 이 뚱은 옷에 묻은 물건의 맛에 따라 그와 반대되는 맛 가진 물건으로 빼는 것이니…….

아버지와 함께하듯이, 아버지의 세탁법을 흥얼거리며

천천히 옷을 주워 걸어 정리한다. 사람들, 자기 자리에 숨어서 강태국을 보며 제각기 분통을 터뜨린다.

강대영(㉠) 진짜 짜증 나, 아버지 왜 그러시지?

허영분(㉡) 미쳤어!

염소팔(㉢) 돌아 버리겠네.

장민숙(옆의 다른 사람들을 알아차리고 비명 지른다.)
악!

강태국(놀라며) 거기 누구요?

사람들(모두 놀라 다급하게 저마다 동물 소리를 낸다.)
야옹, 짹짹.

강태국 세탁소가 갑자기 동물의 왕국이 됐나?

1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점)

- ① 행동, 해설, 대사로 구성된다.
- ②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
- ③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이 전개된다.
- ④ 모든 사건을 무대 위에서 과거화 하여 보여준다.
- ⑤ 현실의 사회, 문화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17.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점)

- ① ㉠: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공간으로서의 상징성을 지닌다.
- ② ㉡: 등장 인물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소재이다.
- ③ ㉢: 가족 간의 정, 부모에 대한 사랑과 예의를 중시하는 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 사건의 전환을 가져오면서 인물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 ⑤ ㉤: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 있는 안씨 가족이 세탁소를 혈값에 사고 싶어 한다.

18. (다)에서 어둠속에서 세탁소를 뒤지는 사람들과 밝은 빛 아래의 강태국을 대조시켜 놓은 까닭으로 옳은 것은? (4점)

- ① 관객들이 밝은 부분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다른 한쪽을 어둡게 처리하였다.
- ② 동물 흉내를 내며 옷을 뒤지는 모습을 더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 ③ 세탁소에 몰래 숨어든 사람들의 행동을 더욱 또렷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이다.
- ④ 관객들의 상상력을 이끌어내고 사건의 진행을 빠르게 전개하기 위해 어둠과 밝음을 대조시켰다.
- ⑤ 돈에 눈이 먼 탐욕스러운 인물들과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강태국의 모습을 시각화하여 강조하고 있다.

☞ 다음 장에 계속

신반포중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과목명	국어	과목코드	01
	2016학년도 7월 7일 1교시	출제자	김은경, 최은진, 김성희		
		반 번호:	이름:		

19. (라)의 ㉠~㉥ 중 중의적 표현을 통해 현실을 비판하고 풍자하고 있는 부분은? (4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20. (라)의 (㉦)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3점)
- ① 독백 ② 방백 ③ 해설 ④ 지시 ⑤ 대화
21. 위 작품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점)
- ① 안경우: 어머니의 이름조차 잘 모르면서 돈에 대한 욕심이 많다.
- ② 강대영: 자신만 생각할 줄 아는 전형적인 청소년의 모습을 보인다.
- ③ 염소팔: 할머니의 재산을 탐내는 이유는 어머니를 잘 모시기 위해서이다.
- ④ 장민숙: 강태국의 아내로 남편과 함께 인정을 중시하고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지키려 애쓴다.
- ⑤ 서옥화: 할머니의 간병인으로 팔자를 한번 바꾸어 보겠다고 혈안이 되어 할머니의 웃을 찾는다.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야아, 저게 무슨 꽃이지?”

그런데 그 애는 놀림 대신 갑자기 똥판지같은 소리를 질렀다. 말 타듯이 철근 뭉치에 올라앉아서 그 애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내려다보았다. 거대한 교각(橋脚) 바로 위, 무너져 내리다 만 콘크리트 더미에 이전에 보이지 않던 꽃송이 하나가 피어 있었다. 바람을 타고 온 꽃씨 한 알이 교각 위에 두껍게 쌓인 먼지 속에 어느새 뿌리를 내린 모양이었다.

“꽃 이름이 뭔지 아니?”

난생처음 보는 듯한, 해바라기를 축소해 놓은 모양의 동전만 한 들꽃이었다.

“취바라송꽃…….”

나는 간신히 대답했다. 시골에서 볼 수 있는 거라면 명선이는 내가 뭐든지 다 알고 있다고 믿는 눈치였다. 취바라송이란 이 세상엔 없는 꽃 이름이었다. 엉겁결에 어떻게 그런 이름을 지어낼 수 있었는지 나 자신도 어리벉벉할 지경이었다.

㉠ “취바라송꽃……, 이름처럼 정말 이쁜 꽃이구나. 참 앙증맞게두 생겼다.”

또 한바탕 위험한 곡예 끝에 그 애는 기어코 그 취바라

송꽃을 꺾어 올려 손에 들고는 냄새를 맡아 보다가 손바닥 사이에 넣어 대궁을 비벼서 양산처럼 팽글팽글 돌리다가 끝내는 머리에 꽂는 것이었다. 다시 이쪽으로 건너 오려는데, ㉡ 이때 바람이 휙 불어 명선이의 치맛자락이 훌렁 들리면서 머리에서 꽃이 떨어졌다. 나는 해바라기 모양의 그 작고 노란 취바라송꽃 한 송이가 바람에 날려, 싹누런 흙탕물이 도도히 흐르는 강심을 향해 바람개비처럼 맴돌며 떨어져 내리는 모양을 아찔한 현기증을 느끼며 지켜보고 있었다. (중략)

날이 가고 달이 갔다. 어느덧 초가을로 접어드는 날씨였다. 남쪽에서 쳐 올라오는 국방군에 밀려 인민군이 북쪽으로 쫓겨 가기 시작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생각보다 전쟁이 일찍 끝나, ㉢ 남쪽으로 피란 갔던 명선이네 숙부가 어느 날 불쑥 마을에 다시 나타날 경우를 생각하면서 어머니는 딱할 정도로 조바심치기 시작했다. 내가 벌써 귀땀을 해 줘서 어른들은 명선이가 숙부에게 버림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도망쳤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전쟁이 끝나기 전에 어떻게 하든 명선이의 입을 열게 하려고 아버지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릴 기세였다.

그날도 나는 명선이와 함께 부서진 다리에 가서 놀고 있었다. 예의 그 위험천만한 곡예 장난을 명선이는 한창 즐기는 중이었다. 콘크리트 부위를 벗어나 그 애가 앙상한 철근을 타고 거미처럼 지옥의 가장귀를 향해 조마조마하게 건너갈 때였다. 그때 우리 머리 위의 하늘을 두 쪽으로 가르는 굉장한 폭음이 귀뺨을 갈기는 기세로 갑자기 울렸다. 푸른 하늘 바탕을 질러 하얗게 호주기 편대가 떠가고 있었다. 비행기의 폭음에 가려 나는 철근 사이에서 울리는 비명을 거의 듣지 못하였다. ㉣ 다른 것은 도무지 무서워할 줄 모르면서도 유독 비행기만은 병적으로 겁을 내는 서울 아이한테 얼핏 생각이 미쳐, 눈길을 하늘에서 허리가 동강이 난 다리로 끌어내렸을 때, 내가 본 것은 강심을 겨냥하고 빠른 속도로 떨어져 가는 한 송이 취바라송꽃이었다. (중략)

지옥의 가장귀를 타고 앉아 잠시 숨을 고른 다음 바로 되돌아 나오려는데, 그때 이상한 물건이 얼핏 시야에 들어왔다. 뉘싹바늘 모양으로 꼬부라진 철근의 끝자락에다 천으로 친친 동여맨 자그만 형겼 주머니였다. 명선이가 들꽃을 꺾던 때보다 더 위태로운 동작으로 나는 주머니를 어렵게 손에 넣었다. 가슴을 잡치는 긴장 때문에 주머니를 열어 보는 내 손이 무섭게 경풍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리고 ㉤ 그 주머니 속에서 말갭게 빛을 발하는 동그라미 몇 개를 보는 순간, 나는 손에 든 물건을 송두리째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 뒷면에 계속

22. 밑글에서 유추할 수 있는 '취바라송꽃(들꽃)'의 의미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4점)

- < 보기 > —
- ㉠ 제목 '기억 속의 들꽃'과 관련됨
 - ㉡ 명선이의 소녀다운 면을 드러냄
 - ㉢ 전쟁 통에 홀로 살아남은 명선이를 상징함
 - ㉣ 무남독녀 외동딸로 귀하게 자랐음을 암시함
 - ㉤ 척박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은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존재

- ① ㉠ ② ㉠㉡ ③ ㉠㉢㉣
- ④ ㉠㉡㉢㉤ ⑤ ㉠㉡㉢㉣㉤

23.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4점)

- < 보기 > —
- ㉠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하고 있어 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독자들이 인물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 ㉢ 서술자가 직접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다.
 - ㉣ 독자는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
 - ㉤ 독자는 서술자가 서술한 대로 인물을 파악하게 되므로 수동적 입장이 된다.

- ① ㉡㉣ ② ㉢㉣ ③ ㉢㉤
- ④ ㉠㉡㉤ ⑤ ㉠㉢㉣

24.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장차 일어날 사건과 행동에 대한 조짐과 암시이다.
- ② 인물의 정서를 객관적 정서로 바꿔 전달하기 위한 전략이다.
- ③ 내용상 나의 심리적 변화에 개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이다.
- ④ 인물이 대립과 갈등 과정을 거쳐 도달하게 되는 결과를 의미한다.
- ⑤ 작품과 독자의 인식 사이에 괴리감을 주어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한 장치이다.

25. ㉢~㉤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된 이유로 옳은 것은? (3점)

- ① ㉢: 숙부의 탐욕으로부터 명선이를 지킬 수 없을까봐
- ② ㉢: 금반지를 차지하기 위해 명선이를 위협에 처하게 했던 일에 대해 숙부의 비난을 받을까봐
- ③ ㉣: 피란길에 공습을 만나 부모님을 잃었기 때문에
- ④ ㉣: 강바닥이 팽이가 되어 어쩔어쩔 맴도는 공포를 느껴서
- ⑤ ㉤: 천신만고 끝에 금반지를 손에 넣었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껴서

<독서>

26. '삼포 가는 길'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4점)

- ① 백화는 가출 후 쓰리게 당한 일이 많아 서른이 훨씬 넘는 여자처럼 조로해 있었다.
- ② 정씨는 전과가 있는 인물로 교도소에서 목공, 용접, 구두 수선 등의 기술을 가르쳤다.
- ③ 영달은 현장 사무소가 문을 닫자 반 년 정도 머물던 밥집에서 떠날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다.
- ④ 영달은 서울에서 식모살이를 하던 옥자라는 여자와 함께 살기 위해 착암기를 다루는 기술을 배웠다.
- ⑤ 백화는 영달을 처음 보는 순간 호감을 느꼈으며, 영달의 등에 업혔을 때 본명을 말해주기로 결심했다.

27. <보기>는 '삼포 가는 길' 작품 광고문의 일부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4점)

- < 보기 > —
- ㉠ 제목: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향을 찾아 떠나는 '삼포 가는 길', 분단 실향민을 위로하다
 - ㉡ 부제: 힘든 타향살이를 뒤로 하고 이제는 각자 정착할 곳을 찾아 떠나는 세 사람의 동행<독자서평>
 - ㉢ 떠돌이 삶 속에서 짝트는 인간적 유대감을 그린 작품 - 독자 서00
 - ㉣ 1950년대 이념 대립을 겪은 우리에게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만드는 소설 - 독자 김00
 - ㉤ 가난한 자들이 꿈꾸는 비도덕적인 소망을 통해 산업화로 인한 인간성 상실 문제를 다룬 수작 - 독자 이00

- ① ㉠㉡ ② ㉡㉢ ③ ㉡㉣ ④ ㉢㉣ ⑤ ㉣㉤

-----<끝>-----

※ 선택형 27문항입니다. OMR카드 마킹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기말고사 지필평가(점수) (문항 당 배점 : 각 문항에 표기)	합 계 (점수)
선택형(27문항)	
100	100

문 항	정답
1	2
2	4&5
3	5
4	3
5	1
6	1
7	5
8	4
9	2
10	5
11	1&2
12	4
13	3
14	4
15	3
16	3
17	5
18	5
19	3
20	2
21	4
22	4
23	1
24	1
25	3
26	1
27	2